

“특혜의혹 고려고, 사과·책임자 처벌”

광주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가져

학부모 40여명 기자회견에 반발...양측 설전

광주지역 교육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시험문제 유출로 '성적 상위권 학생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고려고등학교에 사과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다.

'성적차별-평가부정 고려고 사태 광주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고려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고는 적반하장식 대응을 멈추고 사과와 함께 책임자 징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고려고 특정 동아리 학생들에게 제공된 문제와 같은 문제가 기말고사에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7월 감사에 착수해 “고려고가 명문대 진학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특정 학생들을 관리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대책위는 “최상위 학생들에게만 과목별 방과 후 학교, 자율동아리, 토요논술교실 등 별도의 수업이 진행됐다”면서 “또 다른 학교에서 소수만 선택하는 ‘물리II’ 과목을 모든 자연계열 학생에게 이수하도록 해 최상위권 내신 성적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마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천명해도 부족할 상황임에도 고려고는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에게 ‘문제가 사전에 배부됐으니 실의이 별로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부했다”며 “심지어 감사결과 조치 이행은 핑계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해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면서 학부모와 학생 불만이 교육청을 향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고려고에 교육청 감사



24일 오전 '성적 상위권 학생 특혜' 의혹을 받는 광주 고려고등학교 앞에서 '성적 차별-평가부정 고려고 사태 광주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뒷쪽으로 고려고 학부모들이 들고 있는 광주시교육청 규탄 손팻말과 현수막이 보인다.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과 관련자 징계, 기숙사 폐지 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고려고 앞에선 고려고 학부모 40여명이 기자회견에 반발해 교육청과 대책위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었다. 양측은 기자회견 내내 설전을

벌였고 한때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양측을 떨어뜨려 놓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고려고 관계자는 “단체가 요구하는 내용은 대부분 해결됐다”며 “지금으로선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사칭 1600만원 가로챈 보이스포싱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포싱범이 1000여만원을 가로챈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A씨(77·여) 집에서 현금 16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남성은 “금융기관에서 계좌에 남은 돈을 모두 빼갈 수 있으니 미리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고 말했다.

A씨는 화들짝 놀라 해당 은행으로 향했고 계좌에 있는 1600만원을 모두 인출해 집에 보관했다.

남성은 “돈을 지키려면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집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A씨가 다른 은행에 돈을 인출하기 위해 집을 나서자 미리 통화로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로 집에 침입, 텔레비전 옆에 놓인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 돌아오자 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A씨가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보이스포싱 사기를 직감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20대 초반의 남성을 쫓고 있다.

무면허 교통사고 낸 불법체류자 붙잡아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15분쯤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인근 4차선 도로에서 전로변경을 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사고를 냈다.

택시 오른쪽 범퍼 도색이 벗겨지는 정도로 피해는 경미했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접촉사고 후 약 200m를 도주했고, 택시 운전사 B씨(26)가 뒤쫓아 A씨를 붙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관광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을 지속하며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가 운전한 차는 지인 소유 차량으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종종 차를 빌려 운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섬진강서 낚시하다 실종 30대 숨진 채 발견

섬진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실종된 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광양소방서 119구조대는 24일 오전 10시쯤 광양시 다담면 섬진대교 아래에서 이틀전 실종된 A씨(38)를 발견,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30분쯤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섬진강으로 낚시를 왔다가 실종됐다.

광양 119구조대는 고무보트와 구조대원 등 6명을 투입해 섬진대교와 남도대교 사이를 집중 수색하던 중 섬진대교 아래 강변 부근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해 인양했다.

당구장서 '홀라' 도박 혐의 6명 입건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당구장에서 수십만원의 판돈을 걸고 이른바 '홀라' 도박을 한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47) 등은 전날 오후 9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당구장에서 판돈 50만원을 걸고 속칭 '홀라'를 한 혐의(도박)를 받고 있다.

당구장 주인 A씨는 도박개장 혐의로 B씨(43) 등 5명은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소 친분이 있는 B씨 등은 이날 A씨의 당구장 내실에서 약 30분간 카드를 이용해 홀라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동종 전과 등 상습 도박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피한 김포 요양병원 환자들 24일 오전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한 요양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들이 인근 주차장에서 병원 호송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